

대부업 최고금리 연 34.9%→29.9% 내린다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 성실상환자 징검다리론 도입 햇살론 등 4대 상품 年 1.2조 늘리고 금리 1.5%p 인하

정부가 서민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부(貸付)업법상 최고금리를 연 30%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는 연간 5조7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대출 금리를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2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에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햇살론과 세희망플러스대출, 미소금융, 바퀴드림 등 4대 정책금융상품 공급액은 연간 4조5000억원(47만명 수혜)에서 5조7000억원(60만명)으로 1조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올해로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과 세희망플러스 대출은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상환금리는 10.5%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서민금융 대출 공급은 늘리되 금리는 낮춰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1년 이상 4대 정책 금융상품을 성실상환한 사람들에게는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이내에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서민층 대상의 맞춤형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연 7~8%대인 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연 3~4%로 전환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고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편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1200만원 상당의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 이하 자



녀의 교육비로 쓸 수 있도록 500만원 한도로 연 4.5% 저리 대출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정책 서민금융 성실상환자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론을 도입하기로 했

다. 이 상품은 연 9% 금리로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 업무를 확대해 은행에서 저축은행의 10%대 대출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상품 지원대상은 종전보다 완화하고 채무조정과 일자리, 재산 형성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대부업 최고금리를 5%포인트 인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대부업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폐업하는 대부업체가 늘 수밖에 없다"면서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역효과로 저신용자들이 되레 '불법 사채 시장'으로 몰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81.20 (+26.04)
- ▲ 금리 (국고채 3년) 1.80% (+0.01)
- ▲ 코스닥 739.82 (+5.21)
- ▲ 환율 (USD) 1104.60원 (+5.80)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액티브워시' 세탁기가 출시 20주 만에 국내 판매 10만대를 돌파했다. 이 세탁기는 애벌빨래부터 탈수까지 세탁 전 과정을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신개념 세탁기이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 '액티브워시' 세탁기 국내 판매 10만대 돌파

광주공장서 생산

삼성전자의 '액티브워시' 세탁기가 출시 20주 만에 국내 판매 10만대를 돌파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이 세탁기는 지난 2월 출시됐으며 140일 만에 국내 전자용 세탁기 시장에서 40% 후반대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월 삼성전자 전자용 세탁기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자용 세탁기 시장도 40% 이상 성장했다.

거나 섬세한 의류 세탁 등의 애벌빨래를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 또 애벌빨래 후 세탁물을 아래에 있는 세탁조로 바로 투입해 이동하지 않아도 세탁 전 과정을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신개념 세탁기이다. 액티브워시는 국내 출시 이후 북미, 중국, 중남미,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도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비자를 배려한 제품 개발 콘셉트와 디자인, 혁신적인 기술력 등이 액티브워시의 인기 요인"이라며 "비와 땀으로 젖은 세탁물이 많은 여름을 맞아 애벌빨래부터 탈수까지 한번에 끝내는 액티브워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한전, '피츠버그 국제발명전' 대상 수상

금상·특별상도 받아

한국전력은 23일 세계적인 발명전시회인 미국 '피츠버그 국제발명전'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은 자체 개발한 '가공선로 이동식 발채용 카드'와 '이산화탄소 자원화 장치'를 출품해 대상과 금상을 각각 받았다. 이 가운데 가공선로 이동식 발채용 카드는 송전 전력선로를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고 하강·상승하면서 선로에 근접한 수목의 끝 부분만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장비다. 국제발명가협회(IFIA) 특별상도 함께 수상했다. 한전이 국제 발명

전시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금상을 받은 이산화탄소 자원화 장치는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전기분해 복합공정에 관한 기술이다. 개발된 특수 물질을 통해 전환공정의 화학반응 속도를 100배 이상 증진시켜 자원화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저감시켰다. 피츠버그 국제발명전은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전, 독일 뉘른베르크 국제발명전과 함께 세계 3대 발명전시회로 꼽힌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 미국, 스페인, 중국 등 21개국에서 542점이 출품됐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무안 양파 900t 톤백 수매 농협전남본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23일 작황 부진을 겪는 도내 양파 주산지 농민을 위한 톤백(Ton bag)수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매량은 무안지역만 900t을 톤백으로 수매해 약 5000여만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톤백은 대형 마대자루로 한 자루에 500kg 이상을 담을 수 있어 작은 자루에 나눠 담을 때보다 작업비용이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남지역의 양파 재배면적은 90171ha로 전국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양파 생산량은 고온 현상으로 작황이 부진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농협은 무안·신안·함평 등 양파 주산지에서 일정을 수립해 톤백 수매에 들어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강남경 농협전남지역본부장(오른쪽 두번째) 등 임직원들이 23일 무안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찾아 양파 수매 저장시설의 양파를 살펴보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휴가철 앞두고 소비둔화 ... 참외·배추값 하락

광주 지역 과채류 가격이 상추·양파·수박을 중심으로 오른 반면 참외·배추·방울토마토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성장현)에 따르면 2주전에 비해 가격이 오른 주요 품목은 상추·양파·수박이다.

서구 양동시장 소매가격의 경우 상추는

일조량 감소, 고온에 따른 생육부진으로 출하물량 감소하면서 100g에 400원에서 500원으로 20% 가격이 올랐다.

양파는 재배면적 감소와 생육기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1kg당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수박은 우천에 따른 출하작업 지연·무더위로 인한 해갈용 소비 증가로 1개당 1만3000원에서 1만5000

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반면, 배추·참외·방울토마토는 소비위축과 외식수요 감소, 성출하기로 인한 공급물량 증가로 2주전에 비해 5~33% 값이 내렸다.

특히 참외 10kg 상품의 도매가격은 지난 4월 6만3000원까지 가격이 올랐으나 집중 출하기에 돌면서 이날 2만7000원으로 평년가격(3만1000원)보다 떨어졌다.

기타 대부분 채소류는 매르스 여파로 인한 소비부진 영향으로 약보합세를 보였다.

또 과일류 중 저장분 출하중인 사과·배는 거리가 미미한 가운데, 전문취급상인들의 출하조절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제철 과일류는 성출하기로 인한 공급물량 증가로 약보합세를 형성했다.

aT 관계자는 "이달 하순에 잦은 비가 예보돼 공급이 다소 불안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소비 감소와 휴가철을 앞둔 소비둔화로 외식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약보합세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